

#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5적

## ☉ 성인경 (한국 라브리 대표)

지난 1월, 2013년도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설악산 추양하우스에서 3박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함에 있어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 오류, 즉 5적이 있습니다. 객관주의, 성경주의, 혼합주의, 영성주의, 통섭주의가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적 객관주의(objectivism)

“성경과 학문은 별개의 문제이다.”, 혹은 “신앙과 지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성경이 진리이지만 신앙 이외의 문제에서는 해당 학문과 지식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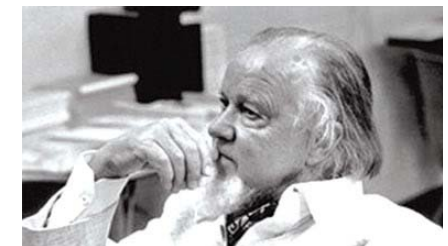
한 철학자는 그의 인생론에서 신앙과 철학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고 연구했다고 했고, 어떤 사업가는 성경대로 사업하다가 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성경이나 신앙은 학문이나 사업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신학은 증거가 불가능한 신앙인 반면, 학문은 증거가 가능한 지식입니다. 즉,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 고유한 권위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와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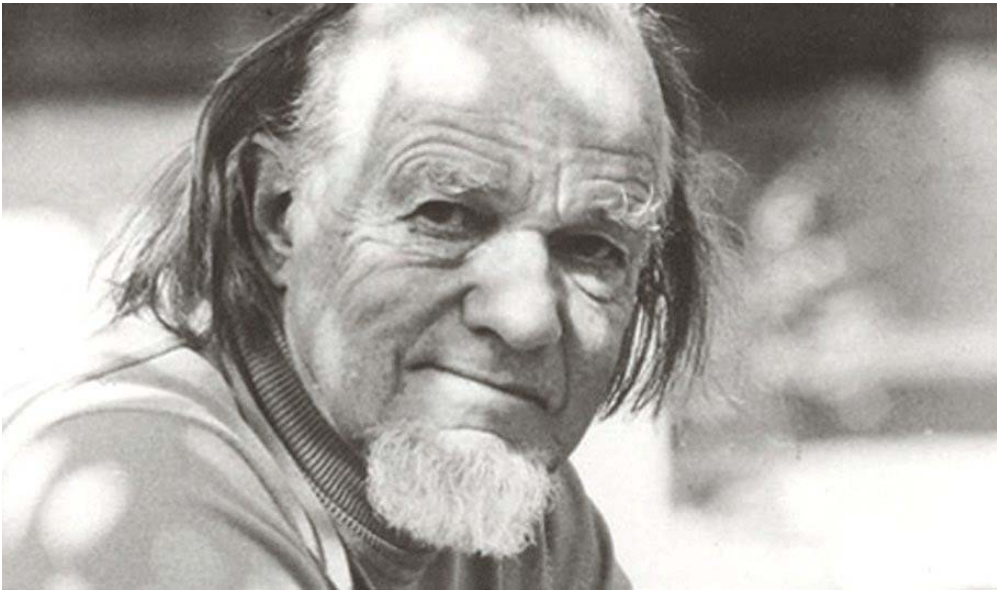
강영안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인식적인 영역에는 인격적인 요소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오직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 확증 가능한 지식만이 학문적 지식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마스덴은 이것을 ‘객관주의(客觀主義, objectivism)’<sup>1)</sup>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엘리트 혹은 지식인들이 이와 같은 객관주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과 학문을 별개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신앙과 학문, 사업 등은 양립 불가능한 영역으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객관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성경과 학문 혹은 신학과 사업, 직장, 생활을 분리하는 이원론(dualism)에 빠지거나 그것을 펴뜨린다는 것입니다. 루이스(C. S. Lewis)는 “이원론이야말로 기독교 다음으로 용감하고 그럴듯한 신조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세계 교회가 객관주의라는 미신에 빠져서 학문의 권위 앞에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거나 학문과 성경을 분리하는 현상이 폭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 강영안, 조지 마스덴(G. Marsden)의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 학문세계', 기독교학문연구소, 2000년 5.6월호, pp.2,3.



### 제2적 성경주의(Biblicism)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며 세상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빌 3:8)처럼 말씀을 따라 세상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만 알기로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성경을 제외한 모든 학문적 지식을 배격하는 배타적인 태도는 결국 신앙에서 인식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마스텐은 이것을 신앙주의라 불렀지만 저는 성경주의(聖經主義, Biblicism) 혹은 성경 맹신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학문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이것은 영적 교만이며 지적 자살입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최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로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독교를 지성적인 종교로 천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17세기 서양 교회에서 일어난 경건주의(pietism) 운동과 20세기 세계 교회에서 일어난 반과학주의(anti-scientism)<sup>2)</sup> 운동이 그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뿌리, 곧 성경주의 혹은 신앙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상 열심히 공부해야 출세할 수 있어서 성경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sup>3)</sup>

2) 17세기 서양 교회에서 일어난 경건주의(pietism)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지적 주도권(知的 主導權)을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기독교는 비기독교적 학문에 종속된 채 반지성주의의 집단으로 낙인찍혀 버렸으며, 서양 교회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온갖 이데올로기에 초도화 되다시피 하였다. 반과학주의(anti-scientism)는 과학을 합리성의 총화로 보아 기독교의 신비성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신념 체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대 과학이 하나님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는 구조상 열심히 공부해야 출세할 수 있어서 성경주의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 제3적 혼합주의(syncretism)

어떤 사람은 성경과 세상 지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섞으려고 합니다. 상담 심리학자인 클랩(Larry Clabb)은 이 방법을 속칭 “샐러드식”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짬뽕’, ‘비빔밥’, ‘섞어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syncretism)는 세상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진리의 타협이나 양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 교회가 타락하고 몰락한 데는 오랜 혼합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철학적 혼합주의(고후 2:17) 외에 구약 호세아 시대의 “여호와 종교가 바알과 혼합되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 되니”라는 말처럼 정신적·영적인 혼합주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조화주의(調和主義, harmonization)가 교회와 지식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화주의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것으로, 불교 용어로는 ‘융합’,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죽’과 같은 것입니다. 김지하는 우리 민족의 조화주의 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지 않은 지식 혹은 성경과 신앙으로 통합되지 않은 세상 지식이지 세상 모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나 전도 방법을 살펴보면 그가 학문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거나 예수에게 복종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들은 본래 일반 학문이나 사회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을 성경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화해(reconciliation)’은 진노를 풀기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성전적 의미로(롬 3:25;5:10,11;고후 5:18,19), ‘구속(redemption)’은 저당 잡힌 물건에 제값을 치루고 다시 사는 상업적 의미로(롬 3:24;8:23;엡 1:7), ‘칭의(righteousness)’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법적 의미로(롬 1:17;3:5,21,22), ‘화해(peace)’는 고아같이 집 잃은 자들이 가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입양되어 평화를 가진다는 가정적 의미로(롬 5:1;8:6;엡 2:14,15) 사용되었다.



“고구려 말에 연개소문이 유불도(儒佛道)의 삼교(三敎)를 조화하여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전개하여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꾀하였고,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삼교의 조화정신을 가지고 화랑도를 고취하여 구국운동을 일으켰으며, 고려 중엽에는 묘청이 삼교의 사상을 조화하여 고구려사상의 창달로서 민족적 자주 운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조화사상을 조선조 말에 수운이 계승하여 삼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화하여 유럽의 천주교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수립하였다.”<sup>4)</sup>

지금도 어딘가에 삼교에 기독교까지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기독교와 동학의 접합을 시도하려는 한 안수집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다원주의가 무르익을수록 이런 시도는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쩌면 동양의 조화주의가 서양의 혼합주의를 만나면 융합, 종합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김지하, 동학이야기, 서울출판사, P.268

#### 제4적 영성주의(spiritualism)

성령을 받으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쉽게 바뀔 수 있으며 공부조차도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영성만 좋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외칩니다. 나는 이런 영성을 ‘괴물 같은 영성’ 혹은 잘못된 ‘영성주의(spiritualism)’ 혹은 ‘성령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성주의는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가 할일까지 대신해 주시거나 면제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 면제하거나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전반에 증거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한 구절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성령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네가(you)”이기 때문입니다(롬 8:13).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이 약화되어 번역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죄와 싸우는 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프란시스 슈퍼(Francis A. Schaeffer)는 이러한 영성을 “수동적 적극성(passive activity)”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성주의는 사상과 생각에 무관심하도록 부추깁니다. 가끔 잘못된 성령의 불꽃놀이에 빠져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공부도 뒷전이고 학문과 신앙을 통합해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기도와 전도에만 열심을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자기 연구 과목을 충분히 소화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뿐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억압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종 능력과 은사가 진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성령의 생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기거나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만 집중하고 성령의 생각에 무관심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영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제5적 통섭주의(consilience)

어떤 사람은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학문을 일관된 이론의 실로 꿰매어 보자고 합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범학문적 연구(凡學間的 研究, trans-disciplinary studies) 혹은 통섭(consilience)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학문적으로 제한한 사람은 하버드대학교의 윌슨입니다.<sup>5)</sup>

그러나 본래 통섭(consilience)이라는 말은 영국의 자연철학자 휴얼(William Whewell)이 학문 간의 넘나들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함께 솟구침(jumping toge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sup>6)</sup>

5) Edward O. Wilson, 통섭(Consilience), 최재천, 장대익 역, 사이언스 북스, p.21

6) 최재천, 통섭의 식탁, 명진출판, p.11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성령의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네가(you)”이기 때문입니다(롬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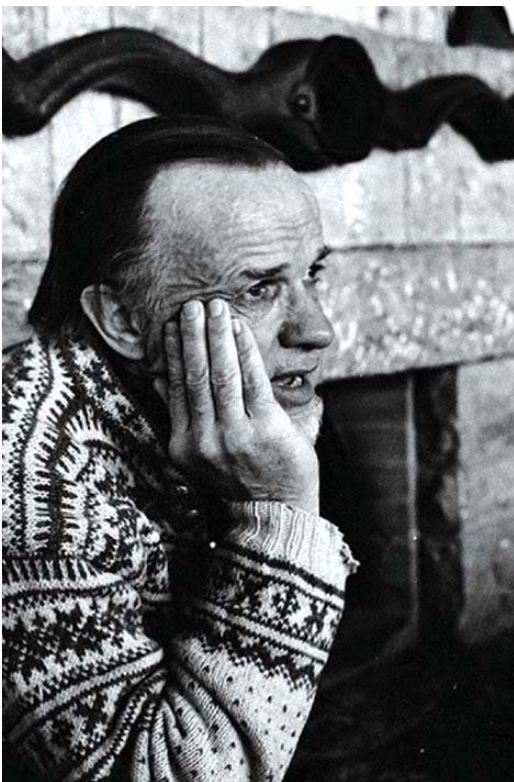




# 한국 라브리 공동체



본 사진은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실시되었던 설익추앙하우스 전경입니다.



경계를 넘어 여러 학문간을 연결해 보고 넘나들어 보는 것은 대법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각 영역이 갖고 있는 독특성과 고유성이 파괴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그들이 제안하는 '깨매는 실'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경제논리, 복지, 행복 등 매우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해보이는 '실'은 종합적 진리나 근접성의 진리를 찾던 이전의 방법론보다 훨씬 개인화되고 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이 큼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섭이라는 말이 어렵고 대중적이지 못하다 하여 '융합' 혹은 '융합적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대융합연구소, 삼성융합연구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융합은 불교적 용어로 선과 악, 패락과 극기 사이에서 진리를 찾는 다분히 중용적인 방법입니다.

### 맺는 말

미신(迷信)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거나 이성적 마비 증세를 일으켜 막연한 기대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 공부의 5적에 빠지면, 성경적인 통찰을 망각하고 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非)진리에 비상착륙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야 할 시기에 어처구니없게 지적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기도취와 만족에 빠지거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객관주의, 성경주의, 혼합주의(조화주의), 영성주의, 통섭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윌슨은 다윈이 적자생존과 자연선택론을 생물학 연구에서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멜터스의 인구론과 경제학에서도 발견한 것처럼 학문간의 통섭 혹은 넘나들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성인경 설악산 기슭에 있는 라브리선교회(L'Abri Fellowship) 한국 대표로서 국내외 청년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목사이다. 한동대학교에서 '성경과 문화'를 강의했고, 월간 <복음과 상황> 편집위원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실행위원으로 섬기기도 했다. 저서로는 <대답은 있다>, <프랜시스 웨퍼 읽기>, <진리는 살아 있다>(이상 예영커뮤니케이션),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낮은울타리) 등이 있다.

##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소개

### ● 목표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는 연구실이나 교실이 아닌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브리 일반 학기와는 별도로 집중적으로 세계관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한국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개발된 한국 라브리만의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교회의 내적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 과정

기본과정으로 기초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요청에 따라 학생, 구도자, 대학원생, 사모, 교사, 교회 지도자, 법조인, 기업인, 의료인, 선교단체 리더, 예술가 등을 위한 특별과정을 단계적으로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 ● 기간

1~2주 과정에서 5~10주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인 개방 기간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연중 코스도 가능합니다.

### ● 협력

현재 지역 교회뿐 아니라 예수전도단, 다리놓는사람들, 기독교학생회(IVF), 유학생수양회(KOSTA), 두란노서원, 누가회, 기독교변호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강의요청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 ● 특징

1. 공동체 생활 속에서 노동과 토론 그리고 기도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몸에 익히도록 합니다.
2. 구도자들이나 불신자들도 같이 공부하므로 서로간 세계관적 차이와 갈등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합니다.
3. 국제 라브리 선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경험한 노하우와 프랜시스 웨퍼의 작업을 기초로 진행합니다.
4.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국제적 사안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
5. 차세대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2013년 겨울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

2013년 겨울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가 지난 1월 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산 추양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라브리 기독교세계관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성인경 대표), 미디어 바로보기(김주동, 예담학교 교사), 지속가능성의 조건(황성주 박사), 정의란 무엇인가(성기진, 철학도), 교회다운 교회(정성규, 예인교회 목사), 샬롯 메이슨의 교육학 읽기(김주희, 사모), 교육학에 들어온 인본주의(서배성, 운양초교 교사), 현대인에 들어온 과학주의(이춘성, 양양중앙감리교회 협동목사), 랩브란트 감상하기(성혜진), 조선왕조실록 번역론(임자현, 동양고전 번역가), 청년들의 3대 고민(서은철, 내수동교회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제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월드뷰의 지면을 통해 앞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 라브리 펠로우십 소개

### ● 라브리란?

라브리(L'Abri Fellowship)는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이자 학습(學宿)입니다. "라브리"는 불어로 "피난처"를 뜻하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누구나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영적 피난처를 지향합니다. 1955년에 프란시스 쉐퍼 박사 부부(Francis & Edith Schaeffer)가 스위스 알프스 산기슭의 위에모(Huemoz)란 동네에서 시작한 이래 현재 전 세계 여덟 군데의 학습과 두 군데의 자료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도가족이 있으나 회원이나 회비 제도는 없습니다.

### ● 라브리의 철학

라브리는 영적 생활이나 사고뿐 아니라 인간 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답을 찾도록 도와주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브리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진리(眞理)이며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찾아오는 손님, 학생들의 질문과 문제들을 신중하게 논의합니다. 라브리는,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정직한 대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라브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종교, 역사, 심리학, 교육, 정치, 사회 등 현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라브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라브리는 성경적인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나 이념이 아니라 죄지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이며 만물의 존재 양식에 부합하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철학 위에서 라브리는 다음의 세 가치를 강조합니다.

1. 영적 실체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과시되어야 한다.
2. 성경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상관성을 가진다.
3. 사회적인 윤리, 즉 사랑과 공의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 ● 공부, 강의 및 토론

라브리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self-study)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브리에서 제공하는 특별과정을 제외하고 정해진 교육과정은 없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또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간사(worker)와 의논해서 자기만의 맞춤 교육과정을 정합니다. 물론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은 그룹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적으므로 대개 혼자 연구하게 되고, 때로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라브리에 오실 때에는 어떤 분야를 공부할 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브리는 수양관이나 기도원이 아니지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습(residential study center)입니다. 라브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는 라브리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및 일반 서적이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어 및 영어 강의 테이프와 CD를 통한 공부도 가능합니다.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을 제외한 손님, 학생들은 간사들과 1:1 상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집니다. 간사는 공부과정을 제시하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문제들을 상담해 주기도 합니다. 상담은 대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므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차 한 잔 나누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라브리 근처의 아름다운 자연을 산책하며 대화하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라브리는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상담료나 수업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개인 공부 위주이기는 하나 특별과정이나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

일에 한두 차례 제공되는 강의에는 개인 공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참석을 권합니다. 강의 주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도 종종 제공됩니다. 때에 따라 방문 중인 학자들의 특별 강의나 시사성 있는 특정 주제가 강의될 때도 있습니다. 강의 외에는 기도회나 성경 공부 모임 정도가 특별 혹은 공통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개인 공부와 강의 외에 라브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토론입니다. 자칫 개인 공부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공부의 이점들을 라브리는 토론을 통해 살려냅니다. 공부하다가 생긴 의문점을 언제든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커다란"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어야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브리에서의 열린 토론은 의외로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브리에서는 주로 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을 합니다. 식탁은 토론 중에 야기될 수 있는 경직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장소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놓고 신나게 토론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두 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있습니다.

라브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이 있는 곳"을 모토로 합니다. 라브리에서는 정직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어떤 주제라도 꺼낼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쉽게 제기할 수 없는 질문이라도 라브리에서는 환영합니다. 라브리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대답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브리는 공부와 강의,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라브리가 모든 답을 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며,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 문의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라브리선교회 (215-811)  
Tel 033-673-0037 Email yangyang@labri.kr  
홈페이지 <http://www.labri.kr/>